

No.1. Asian Capitalist 류종현,
OmahaRyu를 넘어선 Alpha Ryu와 자본의
기하적 장기증가를 함께할 마지막 기회의 제안.

(주)알파류인사이트4.0 투자설명회

류종현 대표이사 드림

일정 : 4월 16일 2시~4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회의실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가치투자 4.0버전의 글로벌 허브, 싱글래리티 투자자]

■ 가치투자 4.0 버전

- 가치투자 1.0 벤저민 그레이엄 : 가치보다 매우 싼 2~3류 기업
- 가치투자 2.0 워런 버핏 : 적정 가치의 현 성숙/성장기 1류 기업
- 가치투자 3.0 아크, 제벤베르겐, 소프트뱅크 등 : 미래성장을 기대하는 기술혁신 잠재 1류 기업
- 가치투자 4.0 알파류(류종현)인사이트4.0 : 미래 수익산업을 실제로 지배할 1류 혁신기업들을 비싸지 않게 투자
(미래의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아시안(미래의 글로벌) 스마트 투자자본의 HUB, 싱글래리티 투자자

- 류종현의 가치투자 4.0 운용 통찰력/체계는 최고의 자본투자허브
- 단순하고 탁월한 주주경험인 주주총회와 온라인 간담회 연 1회
- 다양한 선도산업/글로벌 성장지역/글로벌 인구,문화,라이프 트렌드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통합

※ 인간의 지성 한계까지 접근하기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업무, 일상과 건강, 휴가 등 연단위 라이프사이클을 통합 및 단순화할 것임.

[싱귤래리티 Wisdom of Alpha Ryu]

■ Better than 버핏, <알파류>

- 기존 2차, 3차 산업들을 독파하여 1950~1990년까지 누적적으로 투자에 성공했지만, 3.5차 산업인 인터넷과 반도체 산업과 무형의 4차 산업들에 집중하지 못한 버핏은,

시대적인 천재조차도 태어난 시기의 배경지식들이 모두 허물어지는 시대전환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줌. (2000년 이후 장기연평균실적이 이전의 절반)

- 21세기 성장가치투자자 류종현은

1. 세상의 핵심 변화/진화/혁신 방향을 알고,
2. 각 해당 분야의 주요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유지하고
3. 여러 분야들 간의 치열한 상호영향과 종합적인 관점을 통해, 분야들 간에 <상대적 중요성>과 <상대적 장기존속성> 등을 끊임없이 통찰함.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싱글래리티 Wisdom of Alpha Ryu]

■ Better than Anyone, <알파류>

- 나는 중국의 국가정체성 리스크를 어느 정도 예측함,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 대신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인도도 예정)를 투자.
물론 미국로컬투자자보다 밝은 글로벌/지역국가별 통찰력으로 미국의 글로벌
첨단성장기업에 가장 적극 투자.
- 아크는 <중국의 체제, 과제, 중국인의 자유억압>과 <글로벌 통합시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버핏 회장은 <미래 기술, 산업 및 서비스>와 <글로벌 통합시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정의 회장은 <인간의 심리(무의식적 선택, 허영, 선호브랜드)>와
<신정보산업의 역학관계(선도기업 독과점 기하급수적 강화)>를 최우선하지
못하여 실적이 들쭉날쭉함.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 HOW Alpha Ryu(류종현) better?

- 아크 인베스트, 소프트뱅크, 내스퍼스, 제벤베르겐 캐피털, 베일리기포드 등 다양한 가치투자 3.0 버전 투자법인보다 류종현이 낫다.

- 지난 2년간 검토 결과 중기적 관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나 산업적 관점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 관점에서(미국 개별로는, 또한 중국 개별로는 글로벌의 일부일 뿐)

위 투자법인 포트폴리오 내역 및 그 편입 배경의 아이디어와 통찰력보다, 나의 두 법인(오마하류 투자그룹)의 포트폴리오 내역 및 그 편입 배경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더 우월하다.

- 단순한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뒤의 실제 미래산업들과 산업 내 주력기업들의 역학관계로 누가 밀리고 누가 밀어낼 것인가, 또한 그 뒤에 있는 최종수요자들은 인간들, 즉 선진국과 중진국, 개발도상국 등의 십수 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공통 방향으로 흐르는 인간욕구와 니즈의 장기트렌드 및 그것이 유발할 제품과 서비스의 미래 흐름 등을 고려하는 점에서 더 우월하다.

- 다시 말해서, 장차 21세기 사고의 왕으로서 각 산업과 기술 별로 주요 승자들을 가장 통찰력있게 미리 판단할 수 있다.

[Unique Alpha Ryu & Partners]

■ [알파류 & 파트너스] 중 파트너스(류종현의 미래 찰리멍거들)

- 필요하면 투자의사결정 과정들의 효과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낮은 부가가치 업무는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을 <일임형 자문사>와 정보를 수집할 <기술산업 미디어> 등을 인수할 수 있다.
- 류종현의 미래 찰리멍거(멍거는 버핏의 sub 파트너, 나는 3명) 팀은 류대표의 기업분석 및 가치평가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며,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육성과정에 있다.
 - 1) 4차산업 최전선(창업과 경력)에서 신산업 비즈니스와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카이스트 출신 젊은 첫번째 파트너 이사,
 - 2) 경제, 금융에 밝은 신용평가 캐피탈 경력, 열려 있는 종합통찰력이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두 번째 파트너 이사
 - 3) 글로벌 수준 반도체 기업 직원 및 창업 경력의 세 번째 파트너 이사로 한 명의 고려대-서울대 공대 석사 출신 이사

[부연설명, 류종현 & 미래확장 알파류 팀]

■ 복합성장가치 통찰투자자 류종현(가치투자 4.0) 스타일

- 복합투자스타일 : 워런 버핏 + 캐쉬 우드 + 존 템플턴 = 류종현
- 해설 : 버핏(경제적 해자, 경쟁우위)+우드(기술선도, 성장성)+템플턴(객관적 글로벌 비교, 상대적 성장가치) = 류종현

■ Where is Jonghyeon Ryu standing upon?

- 류종현 대표이사는 항상 현재와 미래, 선진국과 대다수인구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등 두 가지 연결영역의 중간을 넘나들어야 한다.
- 기존 성장 빅트렌드(산업과 기업, 서비스 등)와 내재된 인간의 욕구를 전제로, 항상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현실적 성장/독과점/수익 가능성을 통찰력 있게 판단해야 함.
- 선진국의 산업, 기술, 서비스 트렌드와 그것이 거대 인구의 개발도상국에 스며드는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21세기의 20%가 지난 지금, 두 가지의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A.I.는 싱귤래리티 진행 중(거의 40억이 연결, 행성 스케일)
- 류종현 대표이사의(현재 만 43세) 통찰력은 글로벌인베스트먼트 주요 플레이어들과 비교할 수 있고 일부 측면에서 추월할 정도로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조금밖에 안 왔으며 향후 60년간 류대표 통찰력의 기하급수적 증가분에 비교하면 현재의 싱귤래리티 과정도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에 불가함.

깊은 통찰력과 날것의 신선함을 동시에 갖춘 관점의 힘을,
관료제가 전혀 없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자유로운 팀의 힘을
아십니까?

또한 글로벌 투자의 수장의 지적인 자질은 가졌지만
글로벌 투자의 수장의 관료제적 직위를 경험하지 않은 미경험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직 마이크 마쿨라만이 반란군 스티브잡스의 초심자적인 가치를 알아보았고,
오직 오마하시의 가족과 극히 일부 지인들만 초심자 워런버핏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와 한 배를 탄 공동투자법인의 주주가 되는 결정은 장기적으로 1950년대에
버핏에 투자한 성과 이상을 낼 것입니다.

나는 그 기회를 지금 어떻게든 1억 원 이상으로 잡으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 한 차례 기회가, 2021년 3월에 두 번째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는 대형기관의 지분 피투자만 받을 계획)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2019년 11월 설립]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2021년 3월 설립]
 [(주)알파류인사이트4.0 2022.4.16. 투자설명회 / 4.30. 주주청약]



2019 10 09

스타벅스, 에스티 로더 스토리 (잡지 못한 기회)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숀츠가 처음 이탈리아식 커피전문점을 창업했을 때, 242명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217명이 <노>라고 답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때 <노>라고 하지 않은 25명은 모두 큰 돈을 벌었다.
글로벌 명품재벌 에스티 로더 역시 한 미용실에서 크림 형태의 화장품을 팔면서 신화는 시작되었고, 그녀는 인생이 세일즈라는 명언을 남겼다.

워렌버핏, 류종현 (아시아 No.1. 캐피털리스트) 스토리

워렌버핏에게 처음 투자조합의 자금을 맡긴 오마하 시(네브라스카 주)의 초기투자자 7명과,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초기 12명의 주주들은 모두 천만장자 이상이 되었지만, 미국 전역의 시민은 물론 오마하 시민들조차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현재 지속적으로 성공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향후 수십 년간 기대수익이 수백 배 임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 것인가?

13년 개인수익률 연평균 25% 이후,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를 40명 주주(8년간 지켜봐온 투자자들)와 공동설립했으며, 첫해인 2020년(만 1년) 22% 공식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1년 12월 31일 종가 기준(만 2년) 추가 23%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2021년 아크인베스트 -24%, 미국 헤지펀드 평균 6%)
이는 향후 10년마다 6배, 30년 간 300배 가까운 수익률이 누적될 신화의 시작이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나>와 <알파류인사이트4.0>를 세일즈합니다.
- 선택은 당신의(귀사의) 몫입니다! -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늦게라도 알았을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
이제 2022년 상반기라도 귀하(귀사)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주)알파류인사이트4.0(가칭) 설립 : 서서히 오마하 명칭 너머로!

※ 이번 4월 30일 주주청약 신청 및 계약일이(현장 방문) 마지막 행사로 본 법인에 사후적인 추가출자, 유상증자 불가.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며, 1천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1억 원~100억 원 내에서 금액 제한 없음,
(예를 들면, 1억 1천만, 6억4천만, 15억3천만 등 액면가로 주주될 기회)

단, 투자조합 전체 밸런스이슈로 150억 이상 집단은(법인, 자산가 단체) 일정을 동일하나
청약당일에 별도 법인설립, 법인명은 (주)알파류인사이트밸류4.0, (주)알파류위즈덤밸류4.0 등

※ 운용수익률과(10년 약 6배 전후, 20년 30~40배 추정) 별도로,
향후 피인수합병 혹은 상장시 해당 시점에 일시적으로 약 2.8배(시장가치) 추가수익.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 최소 1억 이상(천만원 단위 증액) (주)알파류인사이트4.0 예비주주들은 4월 30일에 주주청약행사(현장 방문)

- 마찬가지로, 150억~200억 단위 집단도 4월 30일에 별도 투자조합법인에 주주청약(주주약정서, 정관 등 모두 동일, 법인만 분리) (그 이하 금액은 상기 기본 법인에 다른 주주들과 함께 최대주주로 참여)

※ **합산 기준 150억~200억 법인 단위로,**

1. 개별 50억 이상 소수집단 동반 출자자들(회장, 법인장, 고액자산가)의 경우 별도 투자법인 (4월 16일 설명회 참석, 이후 필요시 사전 문의 후 4월 30일 당일에 별도 법인으로 주식청약 진행, 필히 동반출자자들 함께 방문)

2. 단일 주주가(한 명, 한 기업) 150억~200억 출자할 경우 단독 법인진행, 마찬가지로 4월 16일 참석, 이후 4월 30일 주주청약서

※ **운용수익률과(10년 약 6배 전후, 20년 30~40배 추정) 별도로, 향후 피인수합병 혹은 상장시 해당 시점에 일시적으로 약 2.8배(시장가치) 추가수익.**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인사이트4.0]

- 1호 법인과 2호 법인의 경우와 달리 1억 이상 자본금 상향 이유는,
1) 1호 및 2호 법인의 성공 레퍼런스, 2) 아래 회수기간에 대한 옵션 추가.

※ 회수기간 옵션(만 10년차에 발생하는 1회성 이벤트)

- 1. 설립 후 만 10년까지 자체 상장(1호, 2호, 3호 법인통합 및 작은 상장사 매입 통해 우회상장) 후 상장주식을 주주별로 현금화
- 2. 설립 후 만 10년까지 글로벌 대자본의 지분투자를 통한 상장(글로벌 대자본의 투자법인 설정 후 1,2,3호 법인 합병을 통한 상장)
- 3. 설립 후 만 10년까지 1번과 2번옵션이 불발할 시, 주주총회에서 <상장시까지 조금더 남을 주주>를 제외한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인 자체를 청산하고,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부분청산은 불가)>의 지분율이 50%이하이면 자사주 등으로 매입함.
(10년이면 자본 6~7배, 상장시 peg비율 0.7 적용 15~18배 자산가치)

※ 첨부1. 주주약정서에 기재.

Who is 류종현 대표?

[經歷]

2022년 4월(계획)~ (주)알파류인사이트4.0 설립 + 기존 (주)오마하류스노볼 + 기존 (주)오마하류글로벌 + 기존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 통합 대표이사.

향후 수 년간 오마하류(with 알파류) 투자그룹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운용사 인수, 글로벌 대형 자본 피투자(일시에 시장밸류 2.8배 이상 업)를 통한 상장 혹은 자체 우회상장을 통해 Excelling Berkshire, [AlphaRyu INSIGHT4.0] Rises !

2021년 3월~현재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대표이사

2019년 12월~현재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대표이사

2011년~현재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KISVE) 대표이사,

2010년~현재 수석 기업가치평가사 (2010년 전문자격 취득.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 - CAPM 이론의 오류 개선), 수석 M&A 매니저(해당 기수 수석, 밸류에이션 전문), 경영 컨설턴트 자격 등

2017년~2019년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초대 고문(주식가치평가)

2012년~2019년 가치투자자협회 부회장,

2011년~2015년. 주식가치평가사 민간자격증 설립 및 발급자(2011~2015) : 가치평가 이론/시험 출제/자격증 발급.

(주)한국투자교육연구소 초대 연구과장(애널리스트, 강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R&BD센터 투자평가매니저(금융투자, 바이오, IT 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19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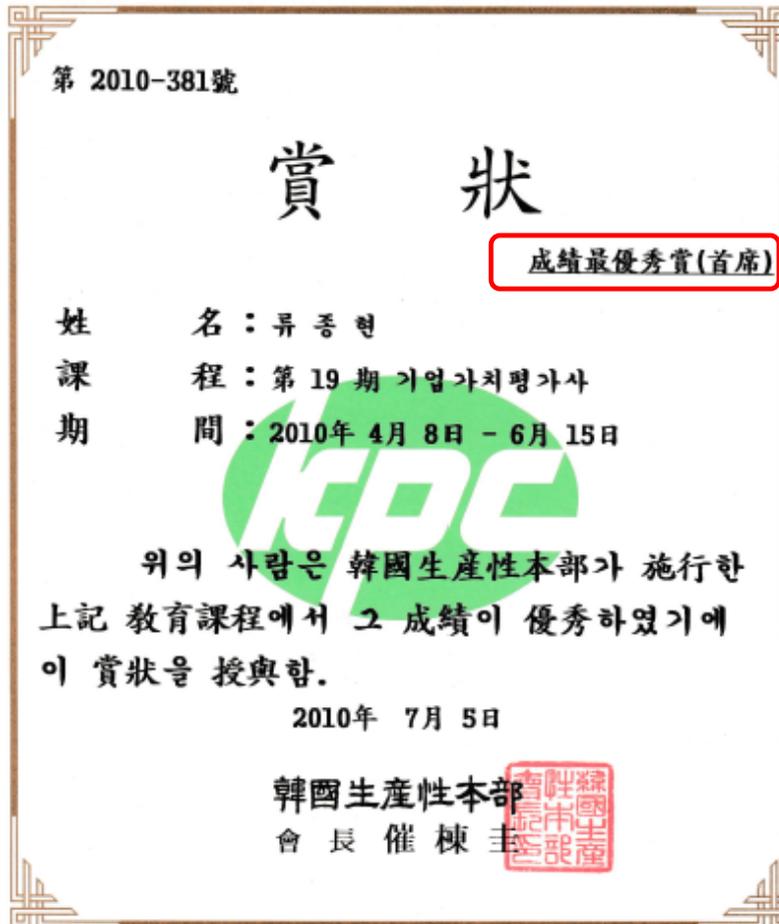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97학번), 투자론 등 경영학과 전공 수강.

대구 최고 명문 경신고(서울대 30명 진학/연간) 설립역사상 교내 수학경시대회 최초 만점(94년도)

[著述, 放送]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Stock Master' 특임교수, 투자자교육협의회 주식가치평가 초빙강사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추천서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류종현 연구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금융전문 인력대상의 기업가치평가사(제19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류종현 연구원은 기업가치평가 전문영역에 대해 여타 금융권 전문종사자들보다 이해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날카로운 질문 등을 통해 강의의 긴장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프로젝트 발표 때에는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과정 종료 후 평가시험에서는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류종현 연구원의 실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제19기 기업가치평가사 과정을 훌륭히 수료하여 "기업가치평가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현 기업가치평가사는 기업가치평가 실무활동 및 이에 기반한 투자 강의 등을 하는 데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0.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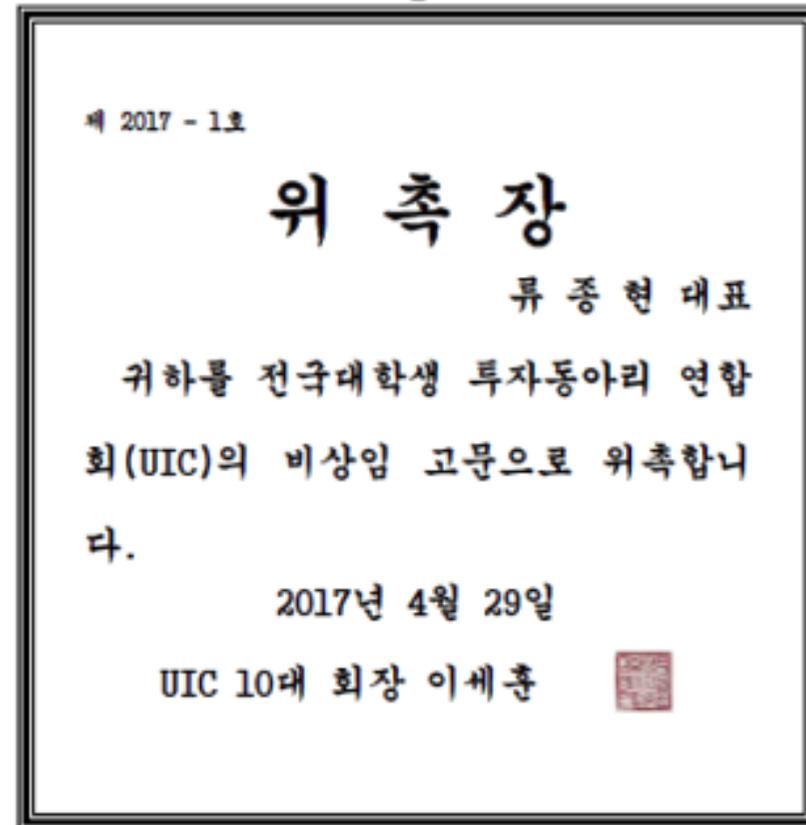
경영학박사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미국선물거래사
前 굿모닝신한증권 기업금융본부 수석팀장



김종일 교수 주요 외부직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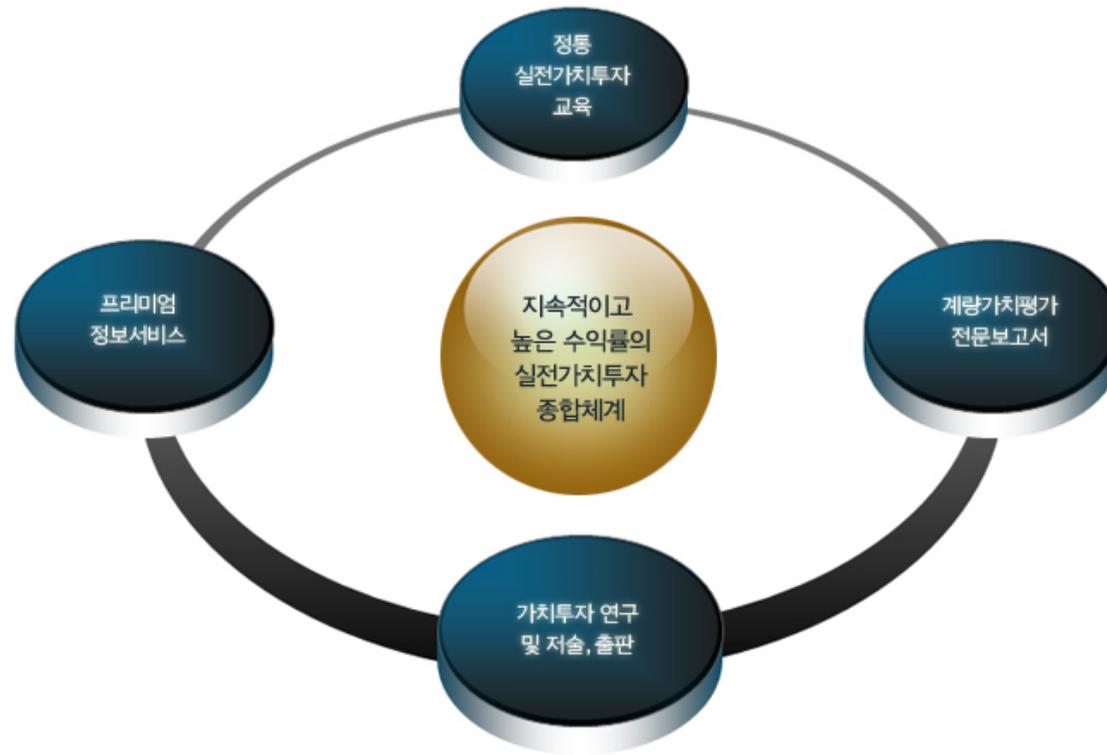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 KPC 기업가치평가사 주임교수
- 한국상장사협의회 위원
- (사)한국M&A컨설팅협회 수석자문위원
- (사)한국기업평가원 수석자문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원
- 한국전력공사 매각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류대표가 10년 운영한 법인,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은?

- 1 정통 실전가치투자 교육
- 2 투자성과와 실력향상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전문보고서
- 3 가치투자연구 및 저술, 출판
- 4 투자분석 및 고유계정운용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류대표 저술 - 실전가치투자를 위한 기본체계, 지식, 전략서



평가원(KISVE)의 성공가치투자체계 교육



1. 정통 재무분석 완성 과정
2. 정통 기업분석 완성 과정
3.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과정
4. 가치투자운용 전략전술 완성 과정



[동영상DVD와 동일한 커리큘럼의 이전 오프라인 교육현장]

류종현 대표의 성공가치투자체계 교육

"어느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더욱 축복받는 것은 그 정상에 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과 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류대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것이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종일 교수
(한국기업평가원 수석자문위원, 한국/미국공인회계사, McKinsey Valuation 대표역자, 前 굿모닝신한증권 수석팀장 등)

"지금까지의 주식투자 및 가치평가 교육 중 수준과 내용, 모든 면에서 최고이다.
최고 전문가의 강의로 가히 성과를 담보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엄상훈 상무

"KISVE의 투자교육으로 당신의 투자실력은 매우 탄탄한 기본 위에서 노도광풍처럼 성장할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파생상품운용부문 박형민 이사

"투자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싶다면 류대표의 실전투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이사

"전문적인 주식(기업)가치평가를 정통으로 배우려면 필히 류대표의 투자교육을 받아라. 다른 곳을 찾는 것은 시간낭비다."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김기현 상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 이상의 투자체계를 체계적으로 쉽게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류대표의 강의 외에는 없다."
유리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이은원 과장(前 VIP투자자문)

"공인회계사조차 인정하는 IFRS 최고 전문가인 류대표님의 강의에 집중하라."
"양원모 공인회계사(서울기술투자 투자부문 팀장, 前 이상기술투자 투자팀장)

"류종현 대표님의 강연은 기업가치 평가와 IFRS의 깊이 있는 실전이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명한투자자들의모임 구도형 대표(대한민국 고수분석 좋은습관)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기다려온 완벽하고 수준높은 최고의 실전 커리큘럼으로 국내에서 공히 독보적이다."
한국감정원 기업가치평가처 박재홍 차장

"어느 열매가 달지 안 달지 판단하는 도구는 오직 오직 KISVE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실 안현섭 선임연구원(前 ADL 컨설팅 계열 선임컨설턴트)

"실전과 이론을 정통으로 섭렵한 류대표님의 강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SNU VALUE(서울대 투자동아리) 前 회장 황인혁

정통재무분석 완성 과정

재무분석 완성 (워렌버핏 정통재무분석) 과정은
입문자 단계부터 들을 수 있으며
중급 이상 투자자(기관투자자 수준)도
배울 것이 매우 많은 실전재무분석 과정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에서부터 각종 내재가치와 관련된 8대 재무손익비율 분석, IFRS 정복과 적정주가 산정에 필수적인 지배지분 분석은 물론이고,
중장기 기업 경쟁력과 성장전략까지 파악하는 시계열적 재무손익분석 등을 강의합니다.

또한, 재무분석 완성 공식카페 가입을 통해 고급재무분석 FRAME(평가원 지재권)을 수료생들의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합니다.

정통기업분석 완성 과정

기업분석 완성 (워렌버핏 정통기업분석) 과정은
입문자 단계부터 들을 수 있으며
중급 이상 투자자(기관투자자 수준)도
배울 것이 매우 많은 실전 기업분석 과정입니다.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비즈니스 시스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유기적 이해 및 내부자관점 분석
과 워렌버핏, 필립피셔 등의 기업분석 툴,
내부자 경영전략(3C 분석 등) 및 실적추정, 광의적 기업분석
격자구조(경제적 해자, 독점) 등을 강의합니다.

또한, 기업분석 완성 공식카페 가입을 통해 KISVE 기업분석
FRAME(평가원 저작권 파일)을 수료생들의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합니다.

가치투자운용 전략전술 완성과정

가치투자운용 전략전술 완성 과정은

거시경제와 주식시장 등락이해 등 주식입문자 단계부터 이해할 수 있으며, 고급투자자(기관투자자 수준 이상)도 역발상 계량가치투자 운용 등 배울 것이 매우 많은 실전 운용전략전술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을 거시경제적으로 해석하고 주식시장의 흐름, 고/저평가를 판단하며,
개별 종목 수준을 벗어나서 주식 종목들 및 기타 자산 포트폴리오(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를 계량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거시경제 및 주식시장 등락을 역발상 수익확대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고급상대평가 완성(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1일차) 주제는,
영업/비영업 실적조정 및 조정실적 기준의 상대가치평가 방
법론을 마스터하는 강의입니다.

재무제표와 기업분석의 요체를 이해하고,
역사적 배수법 등 복합비교 배수법 적용, 경기사이클 요소를
제거한 실적 조정 등 고급실적분석 및 추정능력 등
중급수준의 가치투자자로 거듭나는 고급상대가치 밸류에이
션 부문 내용.

본래 고급상대평가 엑셀파일을(평가원 지재권) 수료생들의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하지만,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과정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통합 엑셀파일(고급상대평가
및 절대가치평가가 일체화된)을** 제공합니다.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절대가치평가(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2일차) 주제는,
고급상대가치평가와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상대가치평가를 배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급단계 주
식가치평가 강의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절대가치평가법으로 산정하기 위한
적정할인율(자본비용)의 체계적인 이해, KISVE 절대 PER,
KISVE 절대 PBR, RIM, 워렌버핏 효율배수법 등과
시장의 고/저평가를 판단하는 고급시장평가법 등을 포함.

본래 절대가치평가 엑셀파일을(평가원 지재권) 수료생들의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하지만,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과정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통합 엑셀파일(고급상대평가
및 절대가치평가가 일체화된)을 제공합니다.**

한국 버크셔해서웨이의 첫 번째 태동,
1호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2호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의 비전과 현황

그리고 마지막 태동,
(주)알파류인사이트4.0(가칭, 3호)는 2022년 4~5월
Closing last door to Alpha Ryu(류종현)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집합적인 액티브펀드의 장기 평균세후수익률보다 인덱스 장기수익률이(3% 대) 더 높다. (펀드마다 실적은 순환하며, 매해 70~80% 펀드가 인덱스펀드보다 실적이 나쁘다)**

그 이유는

- 1) 집단적 의사결정, 2) 대표 혹은 간판 포트폴리오 참조/복제
- 3) 무난한 평균을 위험한 도전보다 선호, 4) 비합리적인 수준의 분산.

※ 그러므로 인덱스펀드에서 차감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자체를 장기적으로 더 앞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성과.

**헤지펀드 : 수익무관 연초 기본수수료 2%+모든 수익률에 대한 성과수수료 20% 액티브
공모펀드 : 매년 차감수수료 2.5% 이상(이 이하 수수료는 병아리/열등 펀드매니저
액티브 공모펀드와 헤지펀드 대부분이, 10년 수익률로 주식시장 하회하는 것이 진실!**

- 한편, 워렌버핏도 추천한 전설적인 가치투자 펀드매니저 빌 루안 : **30년간 연평균 15.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펀드설립 이래 4년간 누적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성과가 저조했으며, 7년 차에
누적수익률이 지수를 능가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나면서 점차 전설이 되었음.
누적수익률 기준으로 필립피셔는 4년차부터, 랄프웬저는 7년차부터 주식시장을 이김.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알려지지 않은 애송이 버핏 조합 최초주주는 7명. (주유소 사업 실패. 버핏 100달러 투자)
※ 1차 조합 주주 7명의(가족+친구) 경우 4% 초과수익의 1/2이 수수료

- 버핏 2차~7차 조합(지역자산가 및 전국 고액투자자들)
※ 벤치마크 6%기준 초과수익의 1/3, 4%기준 초과수익의 1/4, 벤치마크 없이 모든 수익의 1/6 수수료 중 택1.

. 1950년대 젊은 미국 경제성장률이(종합주가지수 증가율) 성과수입의 기준 벤치마크.

- 향후 한국 장기 잠재성장률은 2019~2025년 1.5%, 2026~2035년 1.0% (KDI, 비교적 우호)
2020년대(상동 기간) 평균 1.2%, 2030년대(상동 기간) 평균 -0.4% (한국노동연구원)

. 모두 2018 말~2019 초 전망. 신종코로나 이후 OECD전망 장기잠재성장률 1.2%(40년 이내 추가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종현 조합>은 다소 높은 BM 적용 $1.2 + [2.8] = 4.0\%$ (버핏 조합보다 약 2.8% 초과, 버핏 동일기준시 現 대한민국 BM 1.2~1.5%)

<주주이익 극대화 정책 1 : 버핏보다 합리적인 기여보상, 정책 2 : 전무후무 워터마크 정책 >

매년 기말기준 4.0% 수익률까지 성과수입 없고 초과분의 25%(이후 자본총계 1천억부터 초과분의 20%, 자본총계 5천억부터 15% 등으로 하향, 이하 주주약정서에 기재)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4% 전후 찍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최고 선행투자기회)

※ 4%~10% 저조한 수익률 가정시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8%~4%, 공모액티브펀드는 2.5%, 알파류인사이트 수수료는 0.0%~1.5%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향후 초장기 글로벌 금융환경은(특히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혹독한 저성장기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됨.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마저도 초기 수십년과 최근 십여년의 평균수익률은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 미국 월가에서도 시장수익률을 이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음.

- 2019년 12월에 설립한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1차년도 수익률은 22%, 2차년도 수익률은 23%, 30년 장기성장의 서막이 열림.
(2021년 아크인베스트 -24%, 미국 헤지펀드 평균 6%)

- 조심 & 보수적 & 높은 확률로(초장기평균 20%~23%) 추정하면 법인펀드 자체 장기누적배수는 약 10년 6~7배 전후, 20년 35~50, 30년 200~350배 (성과수입 차감 순자본총계 기준. 실제 자본의 시장가치 수익률은(PBR) 2~3배 기준 10년 14~18배, 20년 80~120배, 30년 400~800배,)

- (주)알파류인사이트4.0 원칙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스노우볼 + 장기성장 최선호개도국(동남아시아 등) 스노우볼 투자. 일부자산 주식 헷지/역발상 투자.

※ 일체의 보유 및 매매 정보 비공개 (like 버핏조합, 모든 주주의 최고수익률을 위함)

- 투자목적 법인 설립 행위 자체가 시작부터 3배 수익 (초장기 ROE 20% 이상 법인의 적정 PBR은 2.8=Peg비율 0.7 이상). 비상장 기업도 마찬가지로, 추후 우회상장/피인수 상장 등

※ 10년 후 자본총계 6~7배, PBR 2.8 감안하면, 현재 10억 지분=10년 후 150~180억 가치.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글로벌 대표 투자자/투자기관들과 비교한 4가지 강점>

■ 주식가치평가 능력

■ 장기성장 2부문(신산업, 이머징) 및 비즈니스 통찰력 급증

- <대변혁기> 편견없는 젊음~실수적을 연륜 사이의, Balanced Age

■ 미국로컬 투자자보다 글로벌에 밝고, 이머징로컬 투자자보다 깊은 신산업 통찰력

■ 20년 최우선 동남아 중산층 이상 이해도(은퇴비자, 장기여행)

투자운용의 3 목표

1. 캐시우드, 버핏과 손정의 이상으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알아보는 통찰력, 가장 현명하게 매수하는 자기통제력
2. 보유종목 분석의 세계 1인자, 포트폴리오 조합의 다면완벽성
3. 보유지식과 종목에 갇히지 않은 확장성, 넓고 깊은 투자지혜와 기회에 대한 개방성

투자법인 경영의 3 목표

1.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범아시아 최고의 가치투자 구루가 되는 것
2. 나와 한 배를 탄 주주들을 나와 함께 건강한 부자, 큰 부자로 만드는 것
3. 타고난 수재를 결과적 천재로 만들기 위해, 행복한 절주학습기계가 되는 것

[류종현 대표의 <코리안 버크셔 해서웨이> 다중 구조 안전판]

※ 자기객관화로는 초장기 연평균수익률 20%~23% 중 최상단 추정, 싱글래리티 접근에 따라 상단 수치 자체가 상승하고 있음.

※ 20년 후 자본총계 최소 35배 이상, 시장가치 최소 90배 이상 추정

※ 워런 버핏 60년 20%, 벤 그레이엄 20년 21%, 월터술로스 30년 21%, 존템플턴 38년 15%.

1. 우상향 섹터 상호보완 스노우볼 선정 (인간육구과 비즈니스 통찰력)

- 상호보완적 장기성장동력을 조합

: 우상향섹터① 글로벌선도 기술산업 + 우상향섹터②확실한 장기성장 개도국산업

- ①② 섹터 내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경제적해자/경쟁우위를 보유하고, 향후 15년 이상 연평균 19~25%, 혹은 그 이상 성장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함.

2. 확실한 비즈니스/수익 분석, 초고도 가치평가 (날카로운 분석&평가기술)

- 정성 분석 : 비즈니스의 경제적 해자/경쟁우위/시장점유율, 수익능력 분석(가장 중요)

- 정량 분석 : 주요 재무비율, 주요/특이 손익내용 장기 분석 및 추정

- 종목별 현재 가치평가 및 장기 연차별(플로우) 가치상승곡선 범위에 따라 운용

3. 주식시장 장기등락 역발상 (장기 시간 통찰력)

- 장기적인 매의 눈으로, 장기적인 주식시장평가(글로벌, 투자국가, 상대 및 절대평가)를 통한 주식 자산/기타 투자비중 조절

글로벌 최고의 장기 / 펀더멘털 2대 성장 동력

정체 세계 중
장기성장 분야

선진산업 (선진/개도국)
& 우량기업

성장지역 중
장기성장 국가

이머징 성장산업
& 우량기업

■ **기존 이머징국가 성장 트렌드(인구, 개도국, 도시)**

- 2050년까지 글로벌 인구 96억 명까지 증가
- 인구증가분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귀속되며, 선진국 인구비율 감소
-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도시위주의 인구증가 : 2015년 세계 도시화비율 54%에서, 2030년 60%, 2050년 67%.
- 메가시티(인구 1천만 이상 도시)의 가속적인 증가추세.

**-고도성장지속할 <이머징국가>의 <도시> <중산층 내수>에 주목!
인구보너스 : 합계출산율 3.0~1.4**

※ 플러스 알파(신종코로나 효과 겹치면서)

탈중국 제조는 멕시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탈미국 BPO는 인도/필리핀 등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기존 이머징국가 성장 트렌드(국부적 역추세, 그래도 세계화)

※ 장기적으로 세계화는 억지추세가 아니라, 불가역적이며 자연적 추세

- 부가가치 창출력 높은 선진국에서 기획/연구개발을 진행, 가성비 높은 이머징국가에서 서비스/제조 모두 아웃소싱.
(가격인하 요구 소비자와 수익증가 요구 주주 모두, 세계화를 지지함)
-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선진국-선진국> 간 무역량 증가율 대비
<이머징-선진국> 간 무역량 증가율이 약 2.5배,
<이머징-이머징> 간 무역량 증가율이 약 4배에 달함.
- 이머징 아시아(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가 내수/수출 쌍끌이 세계화 수혜를 입을 것.

※ 한편 부분적/일시적 역추세 발생하지만, 서비스/제조업의 가성비가 결국 값!

- 자국 중하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부분적 보호무역, 리쇼어링, 글로벌감염병
- 필리핀 BPO인력 및 BPO오피스 수요, 베트남의 제조수요 등은 오히려 증가.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매력분석 1 : 장기성장동력인 합계출산율 등 인구 기준**
 -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BEST
/ 태국 저출산(이미 고령화 진행), 베트남 저출산(10년 후부터 고령화 우려) 진행
- **매력분석 2 : 자본시장 성숙도 기준(태동기 제외,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제외 / 베트남은 중간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비교적 양호
- **매력분석 3 : 경제성장률(5년 이상) 기준**
 - 필리핀, 베트남 BEST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간
※ 필리핀 : 2000년대 이후 GDP성장률 5% 이상, 2010년 이후 매크로는 아세안 최우수.
- **매력분석 4 : 공통 최선호국가인 인니, 필리핀, 베트남 중 내수잠재력 기준**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순
- **매력분석 4 : 다른 글로벌 투자가/운용자/투자자들 대비 상대적 우위 국가**
 - 영어를 많이 쓰고 투자정보가 영어로 제공되는 필리핀(제가 은퇴비자를 보유한 국가)과 인도네시아를 15년 이상 투자(상대적으로 닫힌 인도도 차차 2022년부터 투자범위 확대)

■ 4차산업혁명 트렌드(기본은 IT/모바일에서 이어짐)

※ 4차 산업혁명의 종착점

- 초지능사회 : 모든 사물이 인공지능화
- 초연결사회 : 모든 사물이 연결(클라우드, 빅데이터, A.I.)
- 초산업사회 :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산업전체 독식.

(미래 전산업영역의 모바일/증강/가상 비중은 현재추정 30~35%. 추정치 점진적 상향전망)

※ 혁신기술 ICBMAV

- I(IoT) : 센서, A.I., 음성비서
- C(Cloud) : 데이터센터
- B(BigData) : 문자,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 정보사회의 석유
- M(Mobile) : 이동성, 모바일페이(가상화폐까지)/게임/TV/잡지/쇼핑
- A(A.I.) : 자연러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패턴인식 등 A.I.는 결국 In 로봇
- V(VR/AR) : 쇼핑몰, 게임, 영화, SNS, 현실반영 테마파크, 헬스케어 등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인사이트4.0]

- IT, 모바일, 바이오&헬스 등 현재 다양한 성장산업군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추가성장가능성을** 보는 안목 필요
 - 시너지가 있어야 빨리 성장 :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높은 본업이** 유리
 - 해당 부문 내 글로벌 최고 수준(1~3위) 기술/점유율 갖추어야 선도함
 - 자국을 넘어 반드시 강력한 해외확장성 필요
 - : 지금 시대 경쟁상대는 글로벌, 최소한 복수 대륙(국가가 아닌) 확장 및 경쟁.
- 실제로 성장산업 세부 부문을 **최소한 과점할 수 있고 인접한 타 산업의 침식 시도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기업들이 수익/주가 장기상승.
 - 화려하고 **멋진 미래를 약속하는 환상기업보다,**
실제 **현재 탄탄한 이익기반과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추가적인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현실기업이 수익/주가 장기상승
- 결국 상당한 통찰력의 영역

▪ After 신종코로나 트렌드

※ 신종코로나 사태로부터 회복한 후에도

-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원격 회의, 다중접속게임, 비대면금융(모바일은행/자산운용 등) 등 원격화 비중은 상당히 증가할 것임.
- 본래 모두 대면 형태의 서비스들 중에서도 상당부분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할 것(A.I.와 클라우드, 심지어는 AR/VR 및 홀로그램 활용)
- **[예시] 온라인 유통 대세(온라인/모바일 언택트와 배송 결합) 막을 수 없음.**
다만 신종코로나 종식 후에도 쇼핑, 오락, 문화, 스포츠 등 복합경험 대형쇼핑몰은 여전히 유망할 것. (다양한 즐거움 주지 못하는 단순 대형슈퍼는 쇠퇴)

※ 전체 산업 영역에서(기존 모든 구산업) 발생하는 변화는

- **모바일 우선**(최소한 병행), **자동화&로봇비중 확대**(식품, 의료, 제약, 물류, 건설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A.I. 적용범위 확대.**
- 정시 출퇴근 정규직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벤처기업이나 프리랜서 등 Gig 경제 부상

감사합니다

- 대표메일 customer@kisve.co.kr
- 연구팀 research@kisve.co.kr

※ 위 두 이메일 주소 모두 류종현 대표가 읽고 답장을 드립니다.

운용/분석법인 대표로서, 종목상담이나 투자타이밍 등 일체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투자법인 신설 참여 등에 대해서만 질의받습니다.

※ 본 발표자료의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공식 일정 >

■ 필수 참석 1 : 신규투자법인 설명회 (참석대상. 별도법인 포함 모든 예비 주주들)

- 4월 16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돔형 3층 건물이며, 50층 타워 아닙니다) 2층 사파이어 회의실.

■ 필수 참석 2 : 신규법인 주주청약, 계약일(참석대상. 별도법인 포함 모든 예비주주)

- 4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중 편한 시간(백 명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석 시간순 차례로 다섯 명 이하 단위로 주주확정 서명 진행),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주주청약 장소는 4월 16일 당일 안내)

-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며, 1천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예를 들면 1억, 3억1천만, 11억3천만 등. 설립후 추가출자 불가)

- 1호 법인과 2호 법인의 경우와 달리 1억 이상 자본금 상향 이유는,
1) 1호 및 2호 법인의 성공 레퍼런스, 2) 아래 회수기간에 대한 옵션 추가.

※ 회수기간 옵션(만 10년차에 발생하는 1회성 이벤트)

- 1. 설립 후 만 10년까지 자체 상장(1호, 2호, 3호 법인통합 및 작은 상장사 매입 통해 우회상장) 후 상장주식을 주주별로 현금화
- 2. 설립 후 만 10년까지 글로벌 대자본의 지분투자를 통한 상장(글로벌 대자본의 투자법인 설정 후 1,2,3호 법인 합병을 통한 상장)
- 3. 설립 후 만 10년까지 1번과 2번옵션이 불발할 시, 주주총회에서 <상장시까지 조금더 남을 주주>를 제외한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인 자체를 청산하고, <당장 전액 청산할 주주(부분청산은 불가)>의 지분율이 50%이하이면 자사주 등으로 매입함.
(10년이면 자본 6~7배, 상장시 peg비율 0.7 적용 15~18배 자산가치)

※ 이하 주주약정서에 기재

< 별도법인 주주 (자산가, 같은 날 진행) >

- 150억~200억 단위 집단은 4월 30일 당일에 별도 투자조합법인 주주청약
(그 이하 금액은 기본 법인에 다른 주주들과 함께 최대주주로 참여)

※ 합산 기준 150억~200억 법인 단위로,

1. 개별 소수 동반 출자자들(회장, 법인장, 고액자산가)의 경우 별도 투자법인
(4월 16일 설명회 참석, 이후 필요시 사전 문의 후 4월 30일 당일에 별도 법인으로 주식청약
진행, 필히 동반출자자들 함께 방문. 대리인이 방문청약 진행시 다음 페이지 참조)
2. 단일 주주가(한 명, 한 기업) 150억~200억 출자할 경우 단독 법인진행, 마찬가지로 4월
16일 참석, 이후 4월 30일 주주청약서

<주주청약인수 행사(필수참석, 주주확정-인수/청약/약정서 날인)>

- ◎ 필수참석 일시 : 4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중 자유롭게 아무 때나 방문 및 사인 후 퇴실
- ◎ 필수참석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장소는 4월 16일 안내)
- ◎ 필수참석 준비물 : 주주는 신분증,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통
혹은 신분증,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행사장에 손소독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KF-AD, KF-80, 덴탈마스크 이상을 착용하여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면마스크 제외)

◎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 :

가능하면 반드시 본인께서 오셔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대리인께서 오실 경우에는 미리 평가원 메일(omaharyu@kisve.co.kr, research@kisve.co.kr)로 연락을 주셔서(평가원 실시간 확인),

①위 기본서류 ②대리인위임장 등을 대리인께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주청약인수 행사(필수참석, 주주확정-인수/청약/약정서 날인)>

◎ 필수참석 일시 : 4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중 자유롭게 아무 때나 방문 및 사인 후 퇴실

◎ 필수참석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장소는 4월 16일 안내)

◎ 필수참석 준비물 : 주주는 신분증,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통

혹은 신분증,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경우,

-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부친과 모친의 인감증명서 각 1통과 각 인감도장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법인이 주주가 될 경우,

- 대표가 올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 서류에 대리인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4월 16일 설명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컨퍼런스 센터 2층 사파이어 회의실, 돔형 건물)
- 여의도역 2번 출구를 나와서 150미터 거리에 하나금융투자 빌딩 / 금융감독원 빌딩의 뒤편에 전경련 컨퍼런스센터가 있습니다.(돔형 3층 건물입니다. 50층 타워 아닙니다)
- 위치문의는 02-3771-0114, 02-2055-4148.

